

카카오게임즈 293490

‘BORA 2.0’을 보라

인터넷/게임

Analyst 김동희
02. 6454-4869
donghee.kim@meritz.co.kr

메타보라의 탄생

2월 8일 카카오게임즈는 ‘BORA 2.0’ 행사를 개최, 보라 생태계의 비전과 방향성을 공개하였다. 3월 중에 보라 2.0 백서 출시, 상반기 보라 Phase 1 버전이 오픈된다. 카카오게임즈의 자회사 프렌즈게임즈는 사명을 메타보라로 변경하고 연내 블록체인 보라 연동한 10여종의 게임을 출시하며 2분기 프렌즈샷(모바일 캐주얼게임)이 첫 타이틀이 된다. 보라 네트워크의 협력사는 20여개로 게임회사(카카오게임즈, 라이온하트스튜디오, 넷툰, 엑스엘게임즈, 네오위즈, 위메이드, 모비릭스 등), 엔터테인먼트 회사(카카오엔터테인먼트, 샌드박스, 콜랩 아시아, 레전더리스 등), 블록체인 기술사(크러스트, 버크설리, 하이퍼리즘, 크로스랩 등)이다.

‘보라’ 를 보라

보라는 가버넌스 카운슬 체제로 전환,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등의 콘텐츠 서비스에 최적화된 블록체인 플랫폼을 지향한다. 토큰 이코노미에 대한 고민이 많이 녹아져 있었으며 개별 프로젝트들이 각자의 목적에 맞게 토큰 발행하고 고유의 토큰 경제 구축을 위한 환경을 제공한다. 1) 토큰 인플레이션 로직을 도입하여 다양한 자산거래 위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투자 지원 등의 활용처가 될 수 있게 하고, 2) 토큰 소각 로직 도입을 고려하여 활발히 유통되는 유동성을 일부 회수하는 것도 건강한 토큰 경제 구조 갖추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22년 하반기 보라 Phase 2의 토큰 생태계는 더욱 확장되어 클레이튼 기반의 다른 프로젝트들과 활발한 연계, 호환, 자산 이동을 지원하고, 클레이튼을 제외한 외부 디파이, NFT파이와의 호환성도 지원, 다수의 NFT 및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도 출시된다. 또한 게임 길드 구성원 관리 보상 분배 자동화의 길드 다오 시스템, 아이돌 가수 및 스포츠선수 후원이 가능한 팬덤 기반 참여형 토큰노믹스 구축도 준비하고 있다.

카카오게임즈에 대한 긍정적 투자관점 필요

카카오게임즈의 ‘보라 생태계’ 는 국내 게임, 엔터테인먼트 등의 디지털 자산을 아우르는 대표 NFT 플랫폼으로 성장할 가능성 높다. 2분기 보라 Phase 1 출시를 시작으로 구체화될 ‘보라 2.0’ 과 ‘오딘’ 의 연결 반영과 함께 22년 신규게임 라인업 출시로 또 한번 리레이팅될 영업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카카오게임즈에 대한 긍정적 투자관점 필요하다.

보라2.0 Partners Day 요약

조계현 CEO Greeting

-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암호화폐 경제로 인해 모든 비즈니스 영역이 디지털화, NFT 등장으로 창작 커뮤니티 역시 다른 모습으로 변화, 디파이(탈중앙화 금융)이라는 금융 혁신도 진행되고 있음
- 프렌즈게임즈의 사명을 새로운 방향에 맞추어 '메타보라'로 변경. 보라 발행사인 웨이투빛과 기술력 보유한 나부스튜디오 인수하며 신사업 전략기지로 변모,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등 콘텐츠 및 플레이 분야 전반에 걸쳐 다양한 서비스 선보일 계획임
- 블록체인이 메타버스와 웹3.0 시대의 핵심이 될 것으로 자신, 게임 산업 인사이트를 암호화폐 '보라' 생태계에 접목할 것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

그림1 보라의 2022년

Now in 2022.

1.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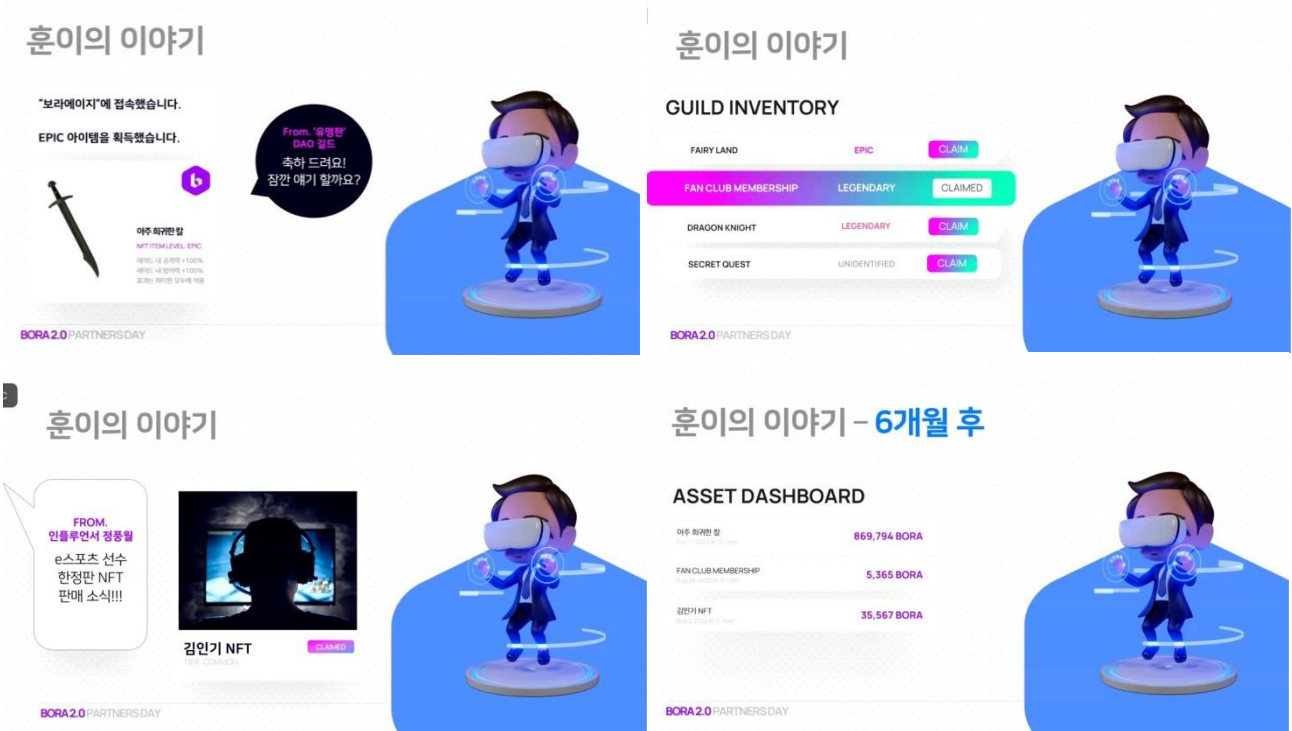


자료: 카카오게임즈,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넵툼 정욱 대표 Keynote

-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2009년에 시작하여 10년의 역사 가졌음. 다수의 사람들이 블록체인 서비스에 관심 갖기 시작한 것은 2017년. 보라도 그때 시작하였으나 크립토 윈터 겪으며 고전. 유니스왑을 선두로 대출, 예금 등의 금융 혁신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음. 오픈 소스 기반으로 확장과 경쟁, 발전하고 있음
- 디파이에 예치하고 가버넌스 행사하고 높은 수익 거둠. 가장 시너지 낼 수 있는 콘텐츠는 게임이나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로 확산될 것임. 액시와 위믹스는 중요한 이정표 남겼음. 보라 2.0의 가상 시나리오로 훈이의 이야기 소개
- 훈이의 이야기: 훈이가 게임에서 획득한 희귀 아이템은 길드 공용 아이템으로 쓰게 될 것으로 보상 옵션 최애 가수 멤버십 부여, 이는 팬미팅 참석권 2회 포함된 NFT로 6개월 후까지 대여 가능
- 스포츠를 좋아하는 훈이는 김인기 선수의 한정판 NFT 취득. 유명한 길드는 길드 내 플레이어들을 게임 플레이 시키는 보상으로 토큰 제공받게 됨. 추가로 NFT 에어드롭 등의 다양한 혜택 주기도, 보라내 수많은 자산 있으며 보라 자산 관리 서비스를 통해 한눈에 관리 가능
- 보라는 체계적으로 커뮤니티 경제를 키워가고 웹3 기반의 엔터테인먼트 생태계의 표준을 제시할 것임

그림2 훈이의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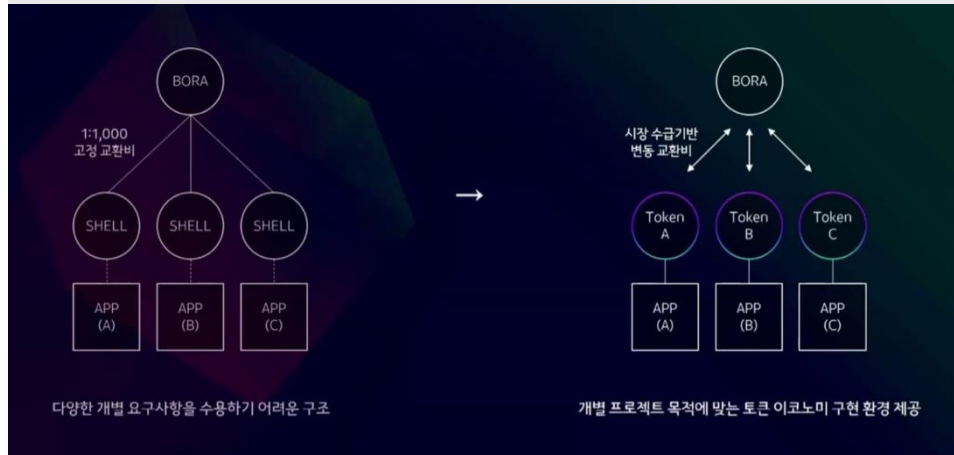
자료: 카카오게임즈,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보라 2.0 개편 방향

과거 보라는 프라이빗 생태계로서 발전에 제한 있었음. 그런 구조에서 탈피하여 가버너스 카운슬 체제로 전환 결정. 보라는 콘텐츠 서비스에 최적화된 블록체인 플랫폼 지향하고 있음. 게임과 엔터테인먼트의 뛰어난 콘텐츠 기업들, 크립토티들과 논의 진행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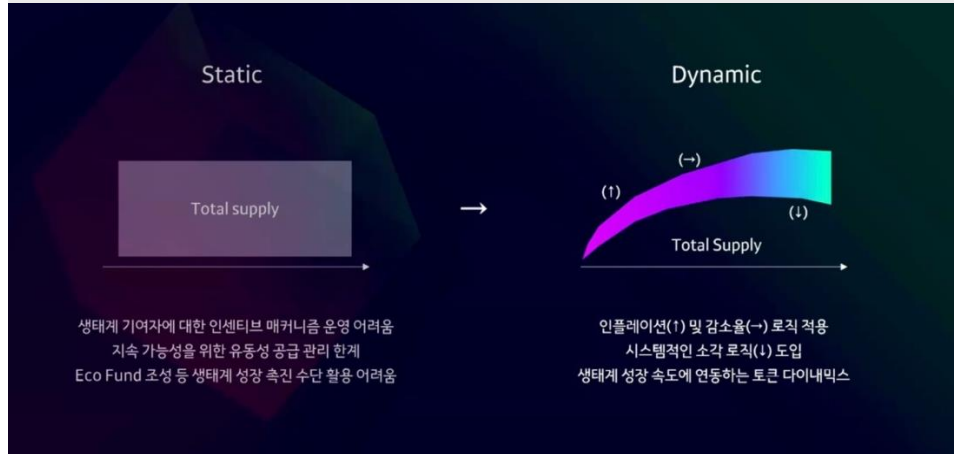
- 개선된 토큰 이코노미에 대한 고민. 개별 프로젝트들이 각자의 목적에 맞게 토큰 발행하고 고유의 토큰 이코노미 구현하는 환경 제공하는 것. 보라가 동적인 형태로 변화될 필요. 고정 발행량 가진 정적인 토큰 이코노미로 되어 있었는데 생태계 기여자들에 대한 유동성 공급 성장 속도에 연동하는 토큰 다이내믹스 가능한 경제 구조 도입 추진 예정
- 1) 토큰 인플레이션 로직, 다양한 자산 거래 위한 유동성 공급, 투자 지원 등이 활용처가 될 것. 2) 토큰 소각 로직 도입 고려. 활발히 유통되는 유동성 일부 회수하는 것도 건장한 토큰 경제구조 갖추는게 중요한 요소
- 대규모 트래픽과 서비스 편의성 높일수 있는 장점 있으나 확장성 부족하다는 약점 갖고 있음. 이런 약점을 보완 고민 위해 첫 단추로 보라 플랫폼은 이더리움에서 클레이튼으로 마이그레이션 단행. 오픈 생태계로의 연결고리 만들어가기 위함 퍼블릭 생태계와도 자유롭게 이동 환경 구현하자는 것. 보라와 클레이튼은 양 체인과의 상호운영 될수 있는 브릿지 개발 논의하고 있음. 지갑이나 스코프 등의 유틸리티에 대해서도 호환성 확보할 예정. 백서 2.0은 3월중 공개 예정

그림3 보라의 New Token Economy (1)



자료: 카카오게임즈,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보라의 New Token Economy (2)



자료: 카카오게임즈,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BORA Governance Council



자료: 카카오게임즈,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보라 플랫폼 개발

- 플랫폼 개발은 페이지1과 페이지2로 나누어 진행. 페이지1은 상반기 오픈 예정
- 프로젝트 다양한 요구 사항 만족시키기 위해 토큰 경제 자유롭게 설계 지원. 서비스 중심의 지원 환경 제공
- 하반기는 토큰 생태계 확장. 자산 관리 서비스 출시 예정. 신규 프로젝트들이 유저풀 확보하는 프로젝트. 토큰 에어드랍 등의 디파이 요소 모델까지 확장

크리스탈과 다양한 협업

- 초기 2년반 클레이튼 1.0, 작년 하반기부터 클레이튼2.0 준비. 클레이튼이 메타버스 위한 고성능 레이어가 되고 게임사나 메타버스 회사들이 쉽고 빠르게 메타버스 환경 만들도록 지원하고자 함. 보라 2.0이 게임 및 디지털 콘텐츠 블록체인 환경 제공하려고 하는데 클레이튼도 잘 지원하려고 함. 클레이튼 메인넷과 자산과 데이터 이동 쉽게, 같은 코드 기반의 프로젝트라서 기술과 생태계 등의 다양한 협업 가능.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위한 노력

엑스엘게임즈, 7월 아키월드 오픈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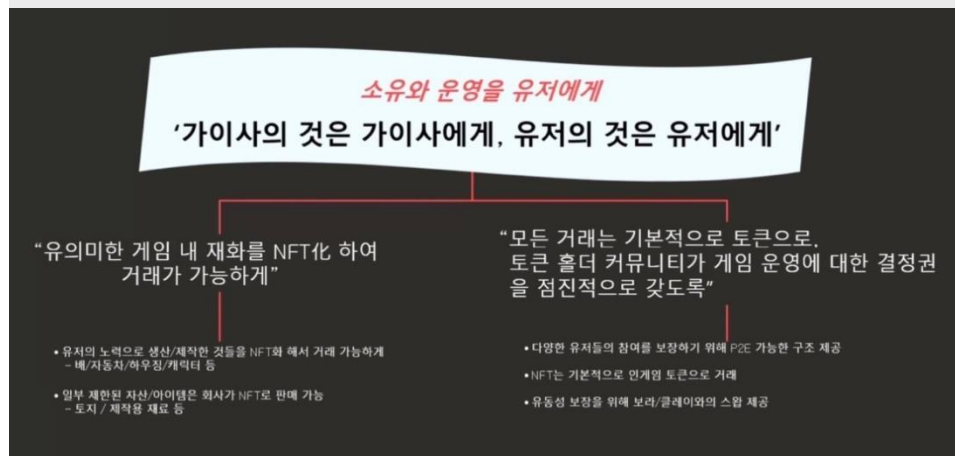
- MMORPG 기반의 메타버스. 아키에이지2는 다양한 기능과 속성 통해 메타버스라 불리게 만들고자 함. 메타버스가 마케팅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을지 확인 가능하며 7월 아키월드 오픈 예정

그림6 MMORPG 기반 메타버스



자료: 카카오게임즈,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실질적 경제 활동이 가능한 MMORPG



자료: 카카오게임즈,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1 Web 3 Asset의 특징

소비가 아닌 투자 자산

- Web3 Game의 아이템 구매는 소비가 아닌 자산 구매
- 가격에 미래가치가 포함되어 가치의 지속적인 부양 필요
- 영속적으로 존재하여 유통량 조절 필요

시장에 의한 가치 산정

- 사용자의 자산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Permissionless하게 거래 가능
- 시장 가격으로 가격 결정
- 가격은 유통량에 크게 좌우

열린 생태계의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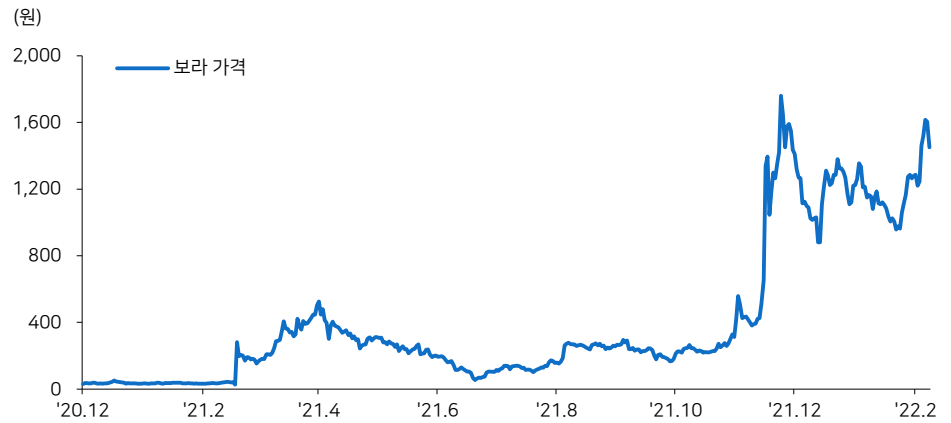
- 외부 프로토콜에서 이 생태계의 에셋을 Permissionless하게 활용 가능

커뮤니티의 참여

- 크립토 에셋은 커뮤니티와의 약속하에 미래가치를 담겨 발행한 자산
- 커뮤니티 동의 없이 이코노미 수정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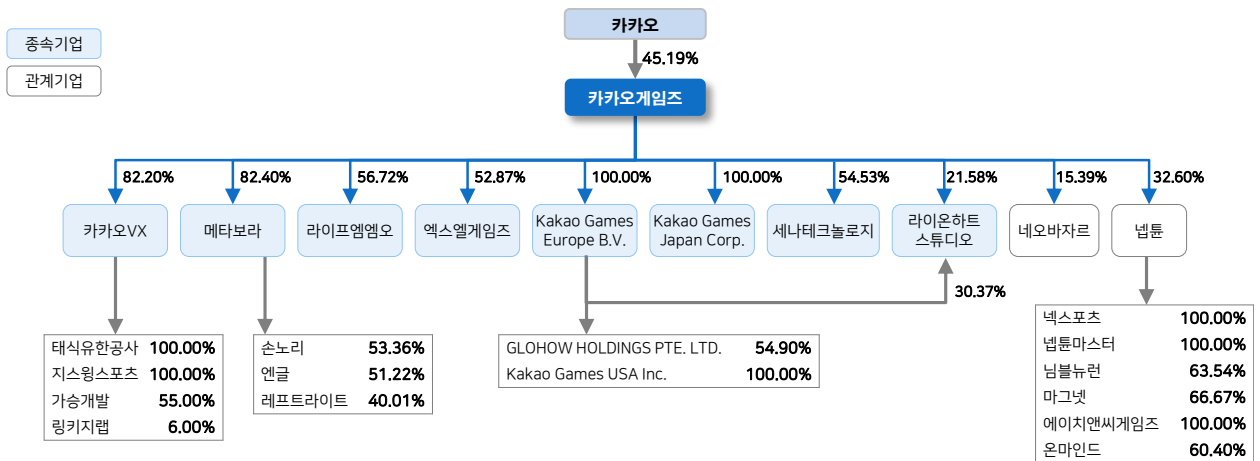
자료: 카카오게임즈,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보라(BORA) 토큰의 가격 추이



자료: 업비트,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카카오게임즈 지배구조



자료: 카카오게임즈,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